

충남 농업구조 새롭게 바꿉니다

농지확보 등 청년농업인 집중 육성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
농촌정책 농어민수당으로 일원화
도, 2026년까지 6000억 추가 투입

“농촌에 젊은 사람들 유입시키고
농업을 산업으로 구조 개선할 것”

충남도가 2026년까지 청년농업인 육성과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등 농업구조 개선에 최대 6000억 원을 투입한다.

새로 투입하는 예산은 농업구조 개선 5670억,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156억, 농어민수당 개인별 지급 128억 원 등 모두 5964억 원이다.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 주거공간 조성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은퇴 농업인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 육성은 ‘청년농업인 신규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건설’ 비전 실현을 목표로, 홍보·교육·훈련과 농지확보, 자금지원 등 3개 분야 28개 과제에 모두 1665억 원을 투입한다.

농촌 주거공간 조성사업에 2000억 원을 들여 지구당 30호 안팎의 주택을 조성하며, 시군별로 1-2지구씩 모두 20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충남형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은 스마트축사, 분뇨에너지화 시설 등을 단지화하는 사업으로, 기반 조성에 1090억 원을 투입해 보령·서천 부사간척지와 당진 석문간척지 2곳을 조성한다.

도는 지역별 노후된 양돈농가를 이주시켜 정주환경 개선 등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형 ‘성공 축산 롤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의 세대교체를 유도하려고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확산을 위한 은퇴 농업인 지원사업에는 모두 915억 원을 투입한다.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농업경영 전문교육 확대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원 등에 156억 원을 투입한다.

작업대, 분무기 등 농작업 편이장비를 매년 2000대씩 지원하고, 여성농업인의 농업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6000명 대상)을 확

대한다.

우수 여성농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선진농업 해외연수(1600명 대상)도 새롭게 추진한다.

농어민수당은 통합해 지원 규모를 23만 명, 14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가구당 지급해 온 농어민수당을 개인별로 지급하면서 가구당 평균 8만 원 증액해 총 지급액이 1278억 원에서 1406억 원으로 128억 원 늘었다.

지급 방법도 개선해 그동안 농어민수당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농가주 여성도 개별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기존 가구주 16만 명에서 개별 농업인 23만 명으로 7만 명 늘어났다.

도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청년농업인 영농바우처 사업을 중단하고 농촌복지 정책을 농어민수당으로 일원화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농업분야 비중을 2022년 14.5%에서 2026년 16%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농업분야 예산을 16%까지 늘리는 것은 민선 8기 도정의 방침을 농업 분야에 짚은 것”이라며 “농업을 산업으로서 구조 개선을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관련 2, 16면)

/농업정책과 041-635-4014

마스크 착용 자율화 검토

김 지사 “실내마스크 자율 바람직”

도, 정부에 조만간 입장 전달

충남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에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2월 5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자율에 맡기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능하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새롭게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 도의 입장을 오늘(5일) 중으로 검토해서 내일(6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보관 041-635-4902

알림

다음 신문은 12월 25일자로 발행됩니다. 연간 발행 계획에 따라 12월 15일자는 쉽니다.

/도청신문팀



희망2023나눔캠페인 출범식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

희망2023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
끝고 있다. /사회복지과 041-635-4254

12월 1일 충남도청 광장에서 ‘희망2023 나눔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범국민 모금운동으로, 올해는 ‘함께하는 나눔, 지속가능한 충남’이라는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도내 목표 모금액은 17억 원이다. 도는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1인당 모금액을 기록하는 등 나눔문화를 이
/사진 맹철영



내포종합병원 건립시계 빨라진다

매매 기간 1년 내로 단축
도에서 직접 종합병원 짓고
병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

충남도가 내포신도시(충남혁신도시) 종합병원과 관련해 설립시기를 앞당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1월 30일 충남도의회 답변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내포신도시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내포신도

시 종합병원 설립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 도와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5월 명지의료재단과 내포신도시 내 의료시설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는 “10월 26일 1차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5회에 걸쳐 납부하게 했고, 마지막 잔금까지 납부하려면 2025년 5월까지다. 민선 8기에는 삼을 뜰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지병원은 대학부속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포주민이나 도민들의 기대감이 적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명지병원 측과 1년 이내

매매 등 모든 부분이 끝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합병원을 지을 때 설치비의 7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며 “70% 시설비를 지원한다면 우리 도가 종합병원을 짓고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강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빠른 시일 내에 내포주민과 도민에게 종합병원을 설립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2045 탄소중립 조기 실현 ‘밀그림’

정기로운 전환 등 27개 과제
내년 초 기본계획 최종안 확정

충남도가 오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조기 실현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도는 11월 28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이행기반 등 8개 부문에서 총 27개 과제 88개 사업을 선정·제안했다.

주요 이행과제는 ▲국제적 협력 관망(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 공조

방안 강화 ▲정기로운 전환의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화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지구(벨트) 조성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육성 등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빗물 재이용을 통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마련 ▲보행로 중심의 도로 재구조화 ▲생활자원회수센터 구축 ▲산림 순환 경영을 통한 탄소 흡수능력 강화 ▲충남 탄소중립 체형 공간 확대 ▲온실가스 농도 실시간 관찰 시스템 구축 등도 도출했다.

도는 이번 최종보고회 내용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27

국립경찰병원 분원 부지 현장 실사 마무리

아산 초사동 후보지 최적지 설명
경찰청 이달 우선협상대상지 선정

충남도가 경찰청 부지평가위원회에 국립경찰병원 분원 후보지인 아산시 초사동 부지의 강점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도는 12월 2일 경찰청 부지평가위원회가 초사동 경찰타운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지리적 여건, 교통 여건, 부지 확보 방안, 인근 인구 유입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부지 활용 가능성 ▲병원 건립 용이성 ▲개발 실행 가능성 ▲확장 가능성 ▲도로·대중교통 접근성 ▲주변 의료기관과의 협력 용이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초사동 부지는 인근에 대규모 주택



경찰청 부지평가위원회가 초사동 경찰타운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하고 있다.

단지과 산업단지가 있어 인구의 지속 증가가 예측돼 의료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후보지의 장·단점, 지자체

지원 계획 등을 평가하는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균형발전과 041-635-3665

젊어지는 충남 농촌...청년 농업인 육성 계획 발표

2026년까지 27개 과제 추진
연간 청년 300명 도내 유입 목표

충남도가 청년들이 돈 버는 농업 현장에 행성력을 집중한다.

도는 12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년농업인 미래포럼을 열고, 민선8기 청년농업인 유입 및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2026년까지 1665억 원을 투입, 연간 300명의 청년농업인을 도내에 유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도·시군 청년 창업 스마트팜 교육장 16개소 구축과 교육 및 기술 지원에 112억 원을, 대학·

선도농가와 연계한 공공형 축산 스마트팜 인큐베이터 운영에는 26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임대형 스마트팜과 청년 보금자리 주택을 연계한 농업 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하고 고품 농업인의 편안한 은퇴 지원을 통한 신규 농지 확보를 통해 영농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의 농지·자금 확보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국 농업 교육기관 이수자 가운데 도내 농창업업을 하는 청년에게는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치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청년농 농지·자금 확보 어려움 완화를 위해 ▲농지 임대료 50% 지원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 2개소 200

억 원 ▲맞춤형 소규모 스마트팜 신축 보급 70개소 210억 원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육성 영농단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청년농업인의 전문농업인 성장을 돕고자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생산·유통·마케팅 연계, 소득 안정 기술 지원 ▲신기술, ICT, 가공·관광 등 아이디어 창업 지원 등 경쟁력 제고(60개소 30억 원) 사업 등을 편다.

청년이 살고 싶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 조성 관련 사업으로는 ▲농촌 주거공간 개선 및 주거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정책과 041-635-4015

서산 간척지에 대규모 ‘청년 스마트팜’

도·서산시·현대건설 협약 체결
330만㎡ 규모 영농단지 조성

충남도가 청년농업인 영농 현장 유입 및 정착,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서산 AB지구에 대규모 스마트팜 영농단지를 조성한다.

도는 12월 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서산시, 현대건설과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청년들의 농업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산 AB지구에 영농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영농단지는 330만㎡ 규모로, 도유지와 현대건설 소유 농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비축 농지 등을 활용한다.

영농단지 내에는 10만㎡ 규모의 스마트팜을 설치, 청년들이 임대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다.

나머지 농지는 청년들이 임대해 영

농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농사보다 스마트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영농단지 입주 청년농업인은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교육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도는 또 영농단지 입주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주택도 마련한다.

입주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스마트팜과 농지 임대, 보금자리 주택 보급 등 세부 사항은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2025년까지 총 436억 원이다.

/농업정책과 041-635-4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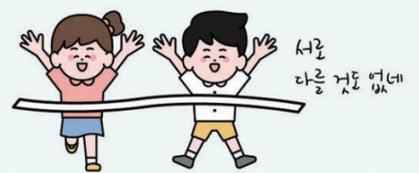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어디에 보내든 똑같이 지원받습니다

충청남도는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부모부담금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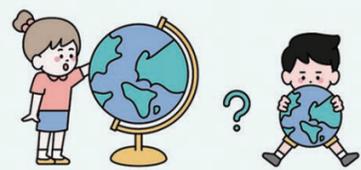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불균형 이렇게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유치원과 보육시설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까지도 교육청 전액 지원을 요청하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동등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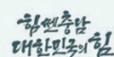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비용 지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외국인 자녀 지원이 우리 자녀에게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 우리 국민과 동일한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입장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충남도정

발행인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창간 1990년 12월 1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s://blog.naver.com/chungnamdojeong

편집인 충청남도 공보관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안내 041-635-2035



조선아산육전일본병지대승리. 1894년 청일 전쟁 중 조선의 아산에서 일본 군이 승리를 거둔 전투를 소재로 제작한 보도판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불바다가 된 아산만...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가 된 조선

격동의 충남 100년

(2) 아산과 성환에서 벌어진 청·일 전쟁

동학군 진압이 일본의 조선식민지화 계기 풍도해전, 성환전투로 청일전쟁 본격화

고종 임금의 우유부단함은 마침내 우리 땅을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아산과 성환 일대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이 그것이다. 우리에게 이 전쟁이 심각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로 하여 일본의 본격적인 식민지 정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빌미를 제공한 것은 동학농민운동. 1894년 2월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이 전라도 고부에서 봉기하여 삼시간에 관군을 제압하고 정읍, 고창, 나주 등, 주요 지역을 점령하자 우리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특히 농민군이 내건 구호가 탐관오리 척결, 외세배격 등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정부는 정부군을 파견, 동학군을 제압하려고 했으나 속수무책으로 그 기세를 꺾지 못하였으며 마침내 전주성까지 동학군의 손에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무능한 고종은 결국 이들이 서울로 진격해 오리라는 생각에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고종은 어떻게 해서든 협상이나 대화로 동학봉기를 수습하려는 의지가 없이 쉬운 방법을 생각해 냈는데 그것이 곧 청나라에 동학군의 진압을 요청한 것이다. 그야말로 악수(惡手)를 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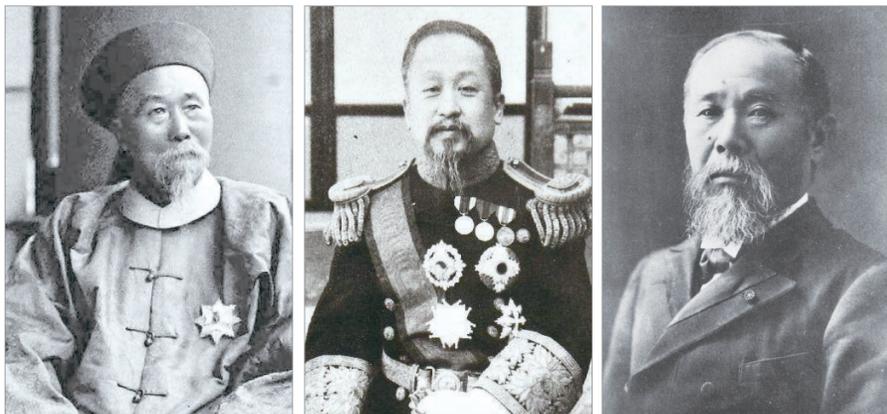
왜냐면 이미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때는 미리 통보하기로 협정이 맺어져 있어 일본으로서는 간절히 기다리던 파병의 구실을 준 것이다. 즉, 청이 개입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일본까지 끌어들여게 된다는 것을 고종은 생각을 못했거나 생각을 했어도 그 결과가 엄청나리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그래서 무능한 지도자가 국가적으로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이라 하겠다. 고종의 요청을 받은 청나라는 그 해 5월 5일 섭사성을 사령관으로 하는 2500명의 육군 병력을 충남 아산에 상륙시켰다. 그리고 이들은 곧바로 천안 성환읍에 있는 월봉산에 진지를 구축했고 일부 병력은 공주로 이동시켰다. 호남지방을 석권하고 서울을 향해 진군하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일본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했을까? 아니다. 청군이 조선에 파병했다는 통고를 받은 즉시, 일본은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에 나섰다. 일본은 재빨리 오시마 요시마사 육군 소장이 이끄는 훈성여단 병력을 조선에 파견했는데 이들은 인천을 통해 서울로 들어와 용산에 진을 쳤다.

이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고종이 일본군 포위 속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군은 곧바로 서울에 진주하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조선의 심장에 병력을 배치한 일본은 충남에 상륙한 청군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 보병 4000명을 남하시켰다.

일본은 이렇게 청군을 가볍게 생각했다. 일본군이 잘 훈련되고 규율도 엄격한 데 비해 청군



이홍장(李鴻章) 고종(高宗) /국립고궁박물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94년(고종 31)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조선에 원병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서 실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립하였다. 조선에서 군사적 선제공격에 나선 일본은 청나라와 전쟁을 일으켜 그 전선(戰線)이 만주까지 확대되었으며, 청국이 연패를 거듭하자 미국의 중재로 1895년 2월 1일부터 휴전, 강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양국은 3월 30일 먼저 6개 조항의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휴전기간 동안 강화협상을 진행하여 4월 17일 전문(畵文) 11개 조항의 강화조약, 각 3조항의 의정서(議政書) 및 발약(別約), 2조항의 추가휴전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청나라는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국임을 인정하였고 조선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다.

자료조사/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역사박물관 선임연구원

은 제대로 현대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다 부대 규율도 엉성했기 때문이다.

청군은 일본군이 자기들을 향해 남하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공주로 향하던 병력을 천안으로 북귀토록 했다. 육지에서 이처럼 청·일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서해에서도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청나라 이홍장이 이끄는 북양함대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고, 이에 맞서 일본 해군도 인천에 6척 등 7척의 군함이 어느 때고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만약 양측이 싸움을 벌인다면 육지에서 먼저 터질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의외로 전쟁은 바다에서 시작됐다.

7월 25일 새벽 아산의 풍도에 정박 중이던 일본 순양함 요시노 등 3척의 군함이 기습적으로 청군 군함 제원호 등에 포격을 가한 것이다. 물론 선전포고도 없었다. 청나라 군함에서도 공격을 가해 왔고 1시간 28분 계속된 함포공격으로 아산만 일대는 불바다가 되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청나라 제원호는 많은 병력을 잃고 도주했으며 광호호는 불타버렸다. 특히 영국으로부터 임대받은 고승호는 침몰했으며 결국 871명의 전사자를 내고 청나라 해군은 패퇴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서해 해전에서 청군이 완패하자 성환에 진을 치고 있던 육군의 사기마저 떨어졌고, 당장 보급로가 끊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반대로 서해 해전에서 완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은 일본군의 사기를 높였을 뿐 아니라 그 기세를 몰아 7월 27일 새벽 성환읍 월봉산에 진을 치고 있던 청나라군을 향해 포격을 퍼부으며 공격을 개시했다. 역시 일본군의 민첩함을 보여준

것이다.

오오시마 육군 소장이 이끄는 일본 훈성 여단 병력은 청군의 퇴로까지 차단하며 공격을 펼쳤고 그래서 청군은 성환을 겨우 벗어나 충북 청주, 진천을 거쳐 강원도로 우회하여 평양으로 향했다.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였다. 그러나 일본은 청군을 그냥 돌려 보내지 않았다. 계속 추격하여 8월 17일에는 평양까지 쫓아가 청군을 완전 제압하고 말았다.

이후 황해해전 등을 거쳐 전쟁이 끝난 후 일본 시모네세키에서 1895년 4월 청·일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청나라는 이 전쟁의 책임으로 엄청난 보상비를 일본에 지불했을 뿐 아니라 대만과 요동반도를 일본이 차지하기로 했다.

이때부터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이다. 사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그동안 청나라에 쏠려 있던 조선의 운명이 그것도 막강한 청나라 군대를 바다에서 육지에서 완전히 무찌른 일본군의 위협 속에 놓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조선의 통치는 새로 부임한 일본의 특명전권공사에 의해 좌지우지하는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쓰디쓴 역사의 운명을 맞이해야 했던가! 무능했던 임금, 부패한 세도정치가 보여준 그 업보가 하필이면 우리 땅 충남에서 벌어졌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변평섭 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진청암 충남 아산시 염치읍 강청리에 있는 표석으로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랫동안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청을 진압했다는 의미로 세웠다고 잘못 알려져 있었다. 강청리 북쪽 영인산 너머 영인면 일대가 1894년 당시 청나라 군대가 머물던 곳이고, 뒤에 일본군이 며칠간 머물기도 했던 곳이기도 하다. 본래 진청암은 풍수지리의 비보개념으로 세워졌다. 마을에 맑은 물이 풍족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표석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대산-당진 고속도로 정부 예타 재조사 통과

9073억 투입해 25.36km 연결
2030년 개통 대산항 물동량 원활
석유화학단지 접근성 개선 기대

사업비 초과로 멈췄던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다시 추진된다.

충남도는 11월 28일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 재조사 심의를 최종 통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부터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CT)까지 25.36km를 4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 고속도로는 2005년과 2009년 실시한 예타에서 탈락한 뒤 2016년 예타를 통과했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6706억 원에서 9122억 원으로 증액되며 지난 3월부터 타당성 재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에서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경제성(B/C, 비용대비 편익)이 0.95로 기준(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정책적 평가(AHP)에서 0.5이상을 넘어 최종 통과되었다.

최종 통과 금액은 2367억 원 증액된 9073억 원이다.

이에 따라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내년 보상과 함께 공사를 시작, 2030년 개통할 예정이다.

도는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대산항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대산단지에서 고속도로 진입(서산나들목)까지 40km에 달하던 이동 거리는 2km로 크게 줄고, 이동 시간 역시 1시간에서 1~2분 사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출퇴근 시간대 국도 29호선 대산읍 구간 통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는 천안 성환~평택 소사 간 국도 1호 선 건설 사업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천안 성환읍과 경기 평택

소사동을 연결하는 4.62km 규모 우회도로로, 총 사업비가 당초 724억 원에서 966억 원으로 242억 원 증액됐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74



고향사랑기부제 문구 넣은 소주 출시

충남도는 (주)맥키스컴퍼니와 손잡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나선다. (주)맥키스컴퍼니는 보조상표에 충남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문구를 넣은 '이제우린' 소주 100만 병을 충청권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일정액(500만 원 이내)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활용된다. 사진은 김태홍(가운데) 충남도지사와 김규식(왼쪽) 맥키스컴퍼니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81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17) 유해 봉환과 국민장 거행



효창원에서 거행된 국민장 모습.

임시정부에서는 해방 다음 해인 1946년 3월 도쿄에 있던 박열과 이강훈, 서상한 등을 중심으로 윤봉길을 비롯하여 이봉창, 백정기 등 3의사 유해봉환단을 조직하였다. 이봉창의사는 사형을 당하고 사이타마현 우라와(浦和)형무소의 부속묘지에 묻혀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유해를 수습할 수 있었다. 백정기의사는 이강훈이 같은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윤봉길의사의 유해를 찾아야 했다. 3월 2일 가나자와(金澤)에 도착한 임시정부유해발굴단은 윤의사의 유해가 육군묘지 구내에 묻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굴 4일째 되던 3월 6일 매장할 때 독경을 했다는 여승이 육군묘지가 가까운 통로를 가리켰다. 소금을 가지고 와서 일대를 깨끗하게 하고 술을 따르는 의식을 마치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25센티미터 정도 파니 지층이 달랐다. 다시 60센티를 파자 십자가 형틀이 나오고, 구두가 나오고 관 뚜껑이 보였다. 뚜껑을 열고 손으로 흙을 파내니 상의에는 피의 흔적이 역력했다. 옷을 제쳐 놓으니 유골이 나타났다. 모두 일손을 멈추고 묵념을 올렸다. 당시 가나자와 의대 학생이었던 주정균이 들어가 맨손으로 유골 하나하나를 정성껏 모았다. 머리 부분에 탄흔이 있는 것을 보고 흐느끼는 대원도 있었다. 주정균의 증언에 의하면, 이마에 총상이 있었고 후두부에 구멍이 있었으며, 옷에 피가 위에서 아래까지 묻어있었다고 하였다. 수습된 뼈를 정성을 다하여 알골로 소독하였다. 유골을 수습한 후 '순국의사윤봉길지구(殉國義士尹奉吉之柩)'라고 쓰여진 새 관에 옮겼다.

맹원들은 윤의사의 유해를 받아 이봉창의사와 백정기의사의 유해와 함께 이봉창의사가 폭탄을 던졌던 사쿠라다몬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애국가 제창을 하고 일본 왕이 있는 황궁 안을 떠돌아다니며 만세 삼창을 하였다. 윤봉길을 비롯한 3의사의 유해는 맥아더 사령부의 군함 편으로 5월 15일 아침 9시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 대창동의 부림유치원에 차려진 빈소에 봉안되었다. 이어서 6월 16일 김구 일행과 함께 서울로 옮겨져 지금의 조계사인 태고사에 안치되었다. 윤의사를 비롯한 3의사의 국민장은 6월 30일 거행하기로 하였으나 갑작스런 폭우로 연기되어 7월 6일 거행되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태고사에서 발인식을 거행한 후 유해를 실은 운구차는 효창원을 향했다. 윤의사의 운구 마차 앞에는 영정과 함께 십자가 모양의 형틀을 모셨으니 길옆에 늘어선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였다. 운구차는 남대문을 지나 12시에 효창원에 도착하였다. 추도식에는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하여 5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하였다. 오후 1시부터 이강훈의 사회로 시작한 추도식은 김구를 비롯한 여러 명의 제문 낭독이 있었다. 이어서 유족을 시작으로 영전에 분향을 하고 하관식을 거행하여 윤의사는 고국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되었다.

유해는 가나자와 재일본조선인연맹 본부 사무실에 옮겨졌다가 3월 8일 아침 가나자와 역을 떠나 다음 날 아침 도쿄의 우에노역에 도착하였다. 도쿄에 있던 청년동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도정게시판

'충남의 맛' 책 한 권에 담았어요 도내 전통 맛집 83곳 선정

충남도는 자체 선정한 특색 있고, 전통이 있는 맛집 83곳의 모든 정보가 담긴 '맛을 찾아 떠나는 충남여행' 책을 발간했다. 책에는 대표음식 사진부터 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 음식 가격, 주차대수 등 맛집 정보와 함께 시군 특산물 정보도 담겼다.

도는 일반 크기의 책자와 함께 한 손에 들고 다니며 지역 특색 음식점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소책자로도 발간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도 제작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살핀다 내년 3월까지 170곳 점검

충남도는 내년 3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지하도 상가와 도서관, 영화상영관,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170곳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반은 다중이용시설 환기 설비 적정 가동, 초미세먼지(PM-2.5) 기준치 유지 등 법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푸른하늘기획과 041-635-2744

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회비 전달 내년 1월 말까지 집중모금

충남도는 12월 1일 적십자 회비 전달식을 열고,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 600만 원을 전달했다.

집중모금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목표 모금액은 19억 9000만원이다.

적십자 회비는 지역 또는 통·리 단위로 설치된 모금위원회로 배부된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지로용지 분실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간편결제, 전화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치행정과 041-635-3595

뼈 건강에 좋은 '바다의 국수'

배명순 명인의 건강음식 만들기 -꼬시래기 겨자 초무침

【재료준비】

재료 : 염장 꼬시래기 200g, 오이, 파프리카1/2개(빨노), 양파 1/2쪽, 겨자소스 : 겨자 1T, 설탕 2T, 식초 2T, 꿀, 레몬, 참기름 1T, 간장 조금, 소금

【만드는 법】

1. 염장된 꼬시래기를 깨끗이 씻어

서 물에 담가 염분을 빼고 물기가 빠지도록 소쿠리에 건져 놓는다. 오이를 반으로 갈라서 얇게 썰어놓고 양파, 파프리카도 채썬다. 2. 준비한 재료를 볼에 담고 겨자소스를 넣어 무친다음, 깨소금으로 마무리 한다.

◆꼬시래기

꼬시래기는 지방과 탄수화물의 함량이 낮고 칼슘과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체내 중금속 배출 등

효과가 있다. 식감이 좋고 면발처럼 생겨 국수 대용으로도 사용한다. 칼로리도 낮고 글루텐 걱정이 없다.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 노폐물 배출을 돕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준다. 또 장운동을 촉진시켜 숙변 제거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약하거나 몸이 찬 사람은 주의하는 것도 좋다.



배명순
요리연구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기름띠를 제거하고 있다.



검은색 기름띠로 오염된 태안 만리포.



푸른 에메랄드빛을 찾은 만리포 해변. 사진/태안군

‘태안의 기적’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년 전 123만 자원봉사자가 만들어낸 ‘태안의 기적’이 마침내 세계인의 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와 극복 과정을 담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된 것. 충남도는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이 26일 경북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MOWCAP) 제9차 총회를 통해 세계기록유산 지역목록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은 유류유출 사고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개인들이 기록·생산한 22만 2129건의 자료다. 도는 앞으로 태안 유류피해 극복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온라인 검색과 열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정책과 041-635-4771

충남문화상 박진균·김가연·안재근 씨

문화예술·체육 부문 수상자 선정

충남도는 제60회 충청남도 문화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로 박진균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자문위원과 김가연 한국문인협회 충남지회 이사를, 체육 부문 수상자로 안재근 아산시체육회 이사를 선정했다.

박진균 자문위원은 36년 간 각종 초대전, 단체전에 참여하고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미술 분야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각종 공모전 심사위원, 미술단체 임원, 한국화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미술 분야의 저변 확대와 후진 양성에



박진균 씨



김가연 씨



안재근 씨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가연 이사는 다수의 시집을 출간하고, 서산 시낭송회, 흙빛문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충남 문단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충남문인협회 이사, 서산 문학예술연구소 대표, 서산문화원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충남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했다.

안재근 이사는 도내 중·고등학교 농

구부 지도교사를 시작으로, 온양중·고등학교 교장, 아산시체육회 부회장, 충남체육회 이사를 역임하며 충남 학생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발전에 공헌했다.

또 각종 체육 프로그램 기획·보급과 체육대회 추진, 비대면 체육활동 콘텐츠 제작 등으로 도민 건강 증진과 체육활동 확산에도 기여했다.

1957년 제정한 충남문화상은 각종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를 창달하거나 향토 문화를 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도민 또는 출향인에게 주는, 지역 문화인들의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

/문화정책과 041-635-3812

유관순햇불상 후보자 대상 확대

만 16세 학교밖 여성청소년까지

유관순상위원회는 오는 3월 발표 예정인 ‘제22회 유관순햇불상’부터 학교밖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후보자 대상을 확대한다.

위원회는 유관순햇불상의 시상 목적이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교훈삼아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선도적으로 활동하는 모범 여학생을 선발하는 만큼 후보자 대상을 전국 고1 여학생에서 만 16세 학교밖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유관순상 및 유관순햇불상 후보자를 추천받으

며, 내년 2월 서면 및 현지 심사를 거쳐 3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관순상 수상자는 상장과 트로피, 2000만 원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게 되며, 유관순햇불상 수상자는 상장과 150만 원 상당의 상금을 부상으로 받는다.

후보자 추천과 유관순상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유관순상위원회는 도와 이화여고,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등 유관순 열사 관련 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3



2045년 Zero(0) 실현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



당진에 대규모 수소부두 조성

충남 당진에 대규모 수소(암모니아) 저장 시설을 갖춘 부두가 2030년까지 조성된다. 도는 12월 2일 당진시, 에이치디시(HDC)현대산업개발 등 9개 기업 대표 등과 '송산지구 수소(암모니아) 부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9개 기업은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일원 송산일반산업단지 앞 공유수면 18만 7000㎡를 매립해 부두를 건설한다. /해운항만과 041-635-4821

충남 서부권 물부족 해결 '첫 단추' '탄소' 포집해 해저에 영구 격리

도·행안부·환경부·시군 업무협약 기후위기 대응 안정적 용수공급 "국내 첫 지방상수도 통합 모델"

충남 서부권 7개 시군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통합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충남 서부권 7개 시군(보령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태안군)과 11월 28일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남 서부권은 2017년 가뭄으로 도내에서 유일한 광역 수원인 보령댐의 수위가 낮아져 제한 및 운반 급수까지

시행한 바 있다. 2015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가뭄 일수가 1579일에 달하는 용수 부족 위험에 시달리는 지역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도사업이 통합되면 시군 간 수도시설이 연계되어 가뭄 등의 기후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해진다. 또한 수도시설의 통합 관리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여 기초 지자체별 누수율, 상수도 보급률 등의 수도물 공급 격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그간 충청남도의 수도사업 통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수도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법률, 회계, 행정, 수도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

회(포럼)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3차례에 걸쳐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반영하여 수도통합 시행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맞춤형 수도통합 지원을 위한 '수도통합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작성 중에 있다.

내년 초 유역별로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수도통합 지침서'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방상수도 통합이 이뤄지게 되면 충남 서부권 시군 수도 경영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수도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물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물관리정책과 041-635-4464

석유공사·중부발전 등과 협약 화학소재 등 유용 물질로도 활용 2050년 연간 1000만 t 저장 기대

충남도가 기후위기 주범으로 꼽히는 탄소를 영구 격리하거나 화학소재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 사업에 나선다.

도는 12월 2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 대회의실에서 공주대, 중부발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 탄소포집저장활용(CCUS)추진단과 '서해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상용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탄소포집저장활용(CCUS)는 발전 및 산업체 등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탄소를 포집한 후 화학소재 등 유용 물질로 활용하거나 해양 지중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해저에 저장된 탄소는 지하수와 만나 석회석으로 서서히 변하며 영구 격리되게 된다.

현재 산업부는 배출 탄소를 동남권, 서해권, 중부권, 남해권 등 4개 권역 대륙봉 심부 지층을 활용, 저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해권 저장소는 보령 서쪽 170km 앞 바다에 위치, 시추 등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해권 저장소 용량은 약 4억 톤 안팎으로 보고 있다.

도는 서해권 저장소를 통해 2050년 경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서해권 저장소 개발과 연계한 탄소 포집, 활용, 이송 및 저장 등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사

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라 도는 포집 탄소 이송 및 활용 관련 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행정적 지원을 편다.

공주대는 포집, 이송 및 저장 테스트베드 운영 등을 통해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개발 업무에 적극 협력한다.

석유공사는 서해권 저장소 구축, 이송 및 감시 설비 구축 등 저장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중부발전은 서해권 저장소 개발과 연계한 탄소 포집 기술 고도화, 포집 설비 운영과 탄소 저장소 공급에 관한 업무에 협력키로 했다.

지질자원연구원은 탄소 저장 및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협력하고, 화학연구원은 이송 배관 내 탄소 대규모 활용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탄소포집저장활용(CCUS)추진단은 서해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상용화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운영하고, 상용화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국가보다 5년 앞선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충남'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 10월에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하며,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시스템과 경제·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활용해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기후환경정책과 041-635-4420



"기념사진 촬영하고 추억 남기세요"

충남도서관은 연말연시 및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도서관 광장을 야간 포토존으로 운영한다. 포토존은 광장에 식재된 소나무와 관목 조경수목에 다양한 색상의 발광다이오드(LED)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경관조명은 저녁 시간부터 밤까지 자동 점·소등되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 /충남도서관 041-635-8022

'민예(民藝)'의 시작

국내의 충남 문화유산 다시보기 -일본 민예관 소장 분청사기철화모란문장군

도쿄 메구로구 고마바에 위치한 일본 민예관은 미술사학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悅, 1889~1961)가 설립한 곳으로, 그가 평생 수집한 생활 공예품이 주로 소장되어 있다.

야나기 무네요시는 도쿄에서 태어나 도쿄제국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다. 그는 예술에도 깊은 관심을 갖

고 있었는데, 대학시절까지 서양의 사상과 미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의 도자기를 접하면서 동양으로 시선을 돌려 민중 속의 미(美)를 발견하여 그 가치를 논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전까지 일본에서 동양 예술이라고 하면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있었지만, 조선, 심지어 도자기라는 실용기물을 가지고 '미'를 논한 것은 야나기 무네요시가 처음이었다.

그가 조선 도자기를 처음 접한 것은 1909년으로, 현재에도 고서점 거리로 잘 알려진 진보초의 골동품점에



일본 민예관 소장 분청사기철화모란문장군

서 3엔을 주고 구입한 백자청화모란문호(白磁靑畫牡丹文壺)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14년 야나기 무네요시를 찾아온 조각가 아사카와 노리타카(淺川伯教, 1904~1964)가 선물로 가져온 백자청화초화문각병(白磁靑畫草花文刻瓶)이었다. 이에 그는 동료들과 함께 창간한 문예

잡지 「시라카바(白樺)」 제5권 제11호(1914)에서 이 병에 대해 "이 차가운 토기에서 인간의 따스함, 고귀함, 장엄함을 읽어낼 수 있게 되리라고는 어제까지만 해도 꿈꾸지 못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는 여러 차례 조선을 오가며 도자기를 수집하고 연구하였다.

일본 민예관에는 800점 이상의 다양한 한국의 고미술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공주 학봉리 가마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철화모란문장군(粉靑沙器鐵畫牡丹文扁壺)도 있다.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 도자기

는 목이 오목하고 몸체가 통통한 좌우 비대칭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목과 어깨부분에는 이층으로 된 능화문이 그려져 있고, 몸통에는 모란문이 그려져 있다. 또한 태토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흑갈색을 띠며 거친 느낌을 주는 등 전반적으로 조선 전기 공주 학봉리 가마에서 제작된 철화분청사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일제의 광화문 철거 계획에 항의했다는 일례가 보여주듯, 식민지 시기 많은 문화유산들이 보호받지 못한 가운데, 그 가치를 알아보고 애정을 갖고 평생 연구한 야나기 무네요시의 수집품은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이유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화재 대피, 이렇게 하세요
충남안전체험관 시설 개선**

충남안전체험관은 피난사다리 설치 등 새 단장을 마치고 체험객을 맞이한다. 이번에 보강된 주요 시설은 하향식 피난사다리와 경량칸막이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요령을 익힐 수 있다. 기존 시설 중 고층화재 체험관은 방화문 발열 기능을 추가하고, 온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진체험관 암흑탈출 구간에 장애물과 가벽을 추가해 실감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에 위치한 충남안전체험관은 7세 이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연령대에 맞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안전체험관 041-559-9740



소화기로 화재 진압체험을 하고 있다.



학생이 완강기 체험을 하고 있다.

도, '2023 대백제전' 준비에 박차...백제로의 시간여행

2023.9.23.~10.9
공주·부여 일원서 개최

성왕즉위 1500년

금동대향로 발굴 30년 기념

'2023 대백제전'이 2023년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7일간 공주·부여 일원에서 열린다.

2023 대백제전은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라는 주제로 공주에서 개막식을 열고 부여에서 폐막식이 개최된다. 대백제전은 제68회 백제문화제 개최

성과를 기반으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열리는 대한민국 최대의 역사재현형 축제이다.

당초 2021년 대백제전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3년으로 2년 연기된 바 있다.

2023 대백제전의 테마는 성왕 즉위 1500년, 금동대향로 발굴 30년이다. 특히 2023년은 성왕 즉위 150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성왕은 523년 무령왕 서거 후 왕위를 물려 받았다.

대백제전은 고대 동아시아 문화예술의 강국이었던 '백제'와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를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중국, 일본 등 백제의 해외교류국 초청 공연과 드론아트쇼, 금동대향로 재현 미디어아트, 성왕즉위식 및 사비전도 행렬, 백마강 수상 홀로그램쇼 등이다.

도는 대백제전 포스터 공모 및 홍보영상 제작, 킬러콘텐츠 개발, 지역전통예술단 초청공연 추진 등 대백제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관광진흥과 041-635-3882

유교문화진흥원장에 정재근 前 차관

초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에 11월 30일 정재근(사진)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임명됐다.

임기는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정 원장은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 연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함께 미래지향



적인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선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목표, 비전,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유산과 041-635-3917

이달의 우수직원에 이주호 주무관

충남도는 11월 우수직원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이주호(사진) 주무관을 선정했다.

이 주무관은 옛 장항제련소를 중심으로 오염된 습지를 복원하는 '장항국가습지 복원사업(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최종 선정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사업은 폐쇄된 산업지역 등 유헤-훼손지인 '브라운 필드'의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국내 첫 사례다.

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천갯벌 등과 연계해 광역권 생태거



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습지 복원 ▲도시 생태 복원(생태숲 조성) ▲전망시설 설치 ▲탐방로 조성 등 4개 사업에 총 913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매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추천받아 공적 심사 후 최종 선발하고 있다. 이달의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직원에게는 특전을 부여한다.

/인사과 041-635-2312

해양수산 신지식인에 오근호 씨

메기 양식 6차 산업 발전 인정

충남도는 홍성지역 정인푸드 오근호(사진) 대표가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2위에 해당하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창의적인 발상·신기술 도입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개발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 사람을 신지식인으로 선발하고 있다.

오 대표는 2000년 홍성에서 메기



양식장을 시작해 현재까지 매년 50톤 이상의 메기를 양식하고 있다.

해수부는 자가 생산 및 주변 양식어가에서 메기를 수매해 제품 가공까지 일원화된 시스템을 구축, 대량생산은 물론 가공시간 단축 및 신선도 보존까지 가능하게 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와 함께 메기를 가공한 식재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인정받았다.

/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52

나의 그림은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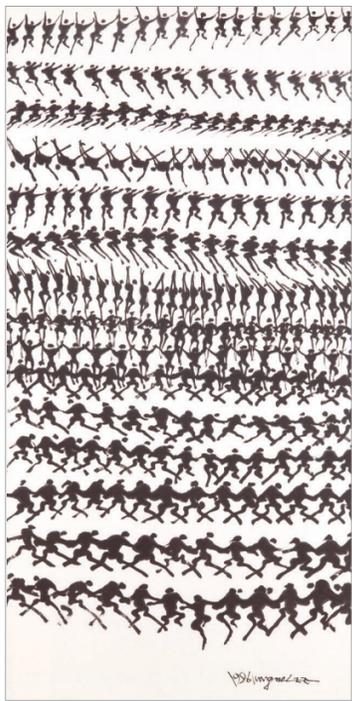
**세계적인 화가, 고암 이응노
화백 삶과 예술**

1967년 이응노의 삶과 예술여정에서 청천벽력 같았던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며 그의 화업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인생노정에 한번 있기도 어려운 일이 이응노에게 또 일어났다. '백건우·윤정희 납치미수 사건'이다. 사실규명이나 어떠한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한국 입국금지 및 한국 활동 금지조치'를 당해야 했다. 간첩누명도 모자라 이제는 그리는 고향, 조국의 흙조차 만져보지 못하는, 조국을 잃어버린, 아니 조국에서 버림받은 예술가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연유로 이응노는 1983년 프랑스에 귀화(naturalization)하게 했다. 한국의 정치가, 이념의 대립이 대한민국의 위대한 예술가를 프랑스 사람이 되게 한 것이다.

이응노는 자신의 신념을 다음과 같이 밝힌 적이 있다. "저는 좌익도

우익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살 길이 있으며, 통일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발 벗고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예술이란 뿌리 찾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응노와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애국지사들, 독립운동가들, 지식인들, 국민들이 주창하였던 '민족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신념이었고, 남북통일이야 말로 반듯이 이뤄져야 하는 국가적 국민적 염원이었다. 이응노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 그림그리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이응노는 '군상'의 초기 형식을 실험하고 있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인간'을 핵심 주제로 한 완성된 '군상' 연작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1980년 '공주 민주항쟁' 소식을 먼 타국에서 접한 이응노는 붓을 들어 민중들의 합성을 그림에 새겼고, 민중들과 함께 평화와 자유를 염원하였다. 1988년 10월,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군상' 연작의 의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내 그림은 모두 평화라고 붙이고 싶어요, 저 봐



고암 이응노, 군상, 한지에 수묵, 68x135cm, 1986년

요, 모두 서로 손잡고 같은 울동으로 공존공생을 말하는 민중그림 아닙니까? 그런 민중의 삶이 곧 평화지 뭐. 이 사람들이 바로 민중의 소리고 마음이야."

/황찬연 DTC아트센터 예술감독

육군사관학교 충남이전!

육사의 두 번째 심장이 뛰는

**육사 충남이전,
이제는 과감히 결단할 때입니다**

국방시너지를 극대화 시킬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
세계 1등 명문사관학교로 업그레이드 되어야합니다

**육사 충남이전,
첨단국방 백년대계의 시작입니다**

‘육사의 충남시대’가 곧 시작될거라는 강한 믿음으로
220만 충남도민 모두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육사와 충남이 대한민국 미래국방의 중심으로
우뚝서는 그날까지

**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서산 한우목장 전경



서산8경으로 손꼽히는 서산한우목장



한우목장의 봄

‘서산 알프스’ 한우목장에 웰빙 산책로 조성

1.6km 데크길, 전망대 설치
52억 투입해 내년 5월 준공

[서산] 충남 서산시 가야산 기슭의 드넓은 초지로 이뤄진 운산 한우목장 일원에 웰빙 산책로가 조성된다. 서산시는 국유지인 운산면 용현리 산8-60번지 일원 서산한우목장에 내년

5월까지 52억 원을 들여 2km의 웰빙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산책로에는 1.6km의 데크 길과 목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포토존 등이 들어선다. 입구에 107대 면적의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춘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곳 국유지 사용 승인을

연었다. 씨수소 등이 있는 서산 한우목장은 그간 가축병 차단 등을 위해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다. 시는 가축전염병 방지와 초지 보호를 위한 관광객 토지접촉 제한시설과 차량 및 개인 소독시설 등을 철저히 갖출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산 한우목장은 가야

산 기슭의 수려한 산세에 초지가 드넓게 펼쳐져 있어, 알프스 같은 이국적인 경관을 자아내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산책로가 조성되면 이곳을 찾을 관광객 등으로 연간 8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우목장 인근에는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마에 삼존불, 개심사, 해미읍성, 해미 국제성지 등 관광자원이 많아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완섭 시장은 “2013년부터 10년의 노력 끝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산 한우목장을 알프스와 같은 세계적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제공

조선통신사 기록물 ‘신미통신일록’ 번역서 발간

인적 구성·소지 물품 등
200쪽 분량 3권에 담겨

[공주] 세계기록유산인 조선통신사 기록물 ‘신미통신일록’ (辛未通信日錄) 번역서가 발간됐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조선왕조가 임진왜란 직후인 1607년부터 1811년까지 바꾸후(幕府)의 요청으로 일본에 12차례 파견한 외교사절 관련 기록물이다. 임진왜란 이후 양국의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고 문화교류의 역사와 성과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돼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그중 하나인 신미통신일록은 조선 마지막 통신사인 죽리 김이교(1764~1832) 선생이 1811년 일본에 다녀오면서 작성한 기록물로, 1763년(영조 39) 이후 48년 만에 재개되면서 단절됐던 양국 관계를 복원했다는 큰 의미를 지닌다.



신미통신일록 원본



신미통신일록 번역서

각 200쪽 분량 3권으로 이뤄진 번역서에는 조선통신사 인적 구성 및 소지 물품, 서울에서 출발해 일본 대마도까지 가는 여정 등이 자세하게 담겼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007년 죽리 김이교 초상과 김이교가 사용한 통신정사 인장, 신미통신일록 등을 일괄 구매해 충남역사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 충남 공주시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9일 오후 1시 공주문화원에서 ‘신미통신일록 번역서 간행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번역서 간행 기념행사에서는 신미통

신일록 역자와 참석자 간 대화를 통해 신미통신일록의 가치와 조선통신사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기념행사 후에는 시민 교육 프로그램인 조선통신사 아카데미와 연계해 원재린 연세대 교수가 ‘신미통신일록의 가치’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최원철 시장은 “신미통신일록 번역서 발간에 힘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번역서 발간이 공주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시 제공

‘부르면 오는’ 마중버스 확대 운행

12월부터 57곳→63곳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

[홍성] 충남 홍성군이 대중교통 취약 지역민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수요응답형 마중버스 대상 지역을 57곳에서 63곳으로 확대 개편한다. 추가 대상은 금마면 평리와 장곡면 광성 1·2구, 월계1구, 은하면 상하국 등 6개 마을로 홍성군은 시범 운영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 운행한다고 밝혔다. 수요응답형 마중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 없이 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전 예약의 의해 운행된다. 토·일요일을 제외한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 운행하며 이용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인 성인 1500원(카드 1400원), 콜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남녀노소 거주 무유와 상관없이 모



마중버스 운행 모습

두가 이용 가능하며 마중버스와 노선버스간 무료환승이 적용된다. 충남 교통카드 소지자(도내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만6세~18세 어린이 및 청소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홍성군은 이와 함께 현재 7개 읍면 11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택시를 운행해 오지 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지역 소식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1인당 50만원 한도

[예산] 예산군이 지역자금 역의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했다. 판매금액은 총 30억원(지류 10억원, 모바일(카드, QR) 20억원)으로 할인 행사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2627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남 공식 배달앱 ‘소문난 샵’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산군 제공

사회적경제 청춘 힐링 투어 인기 칠갑산 휴양랜드서 가을속박관광

[청양] 충남 청양군이 전국 참가자 25

명에게 제공한 사회적경제 청춘 힐링 투어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청양사회경제네트워크와 어찌다로컬협동조합이 2022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 중 ‘사회적경제 관광 프로그램’으로 추진했다. 참가자 25명 중 24명은 누리소통망(SNS) 홍보를 보고 찾아온 외지인들로 6세부터 60대 중반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2박 3일간 ‘칠갑산 휴양랜드’ 숙박을 중심으로 천장호 출렁다리 등 군내 관광지 체험에 이어 ▲협동 레크리에이션(어찌다로컬협동조합)

▲매콤달콤 음식 뷔페(청양의 봄 청춘 협동조합) ▲로컬푸드 숲 체험 및 점심(청양로컬푸드협동조합) ▲목장 방문 및 피자 만들기(알프스 산양목장) ▲로컬뷔페 파티(맛갈손) ▲가을 일기 쓰기 등을 즐겼다. /청양군 제공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질환 발생 추이 모니터링

[금산] 충남 금산군이 12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겨울철 군민 건강을 위한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를 운영한다. 감시체계는 한랭질환 발생 추이를 조사하기 위해 금산지역 발생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한랭질환은 동절기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체에 피해를 주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있으며 방치 시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한파특보 등 기상정보 청취,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균형 잡힌 식사, 실내 적정온도(18~20℃) 유지, 외출 전 외부온도 확인, 추운 날씨 외출 자제 등을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금산군 제공

'겨울 별미' 천북굴단지로 오세요... 11일까지 홍보 행사

굴 찜, 비빔밥 시식 등 다채

[보령] 보령시가 오는 3일부터 11일까지 천북면 장은리 굴단지에서 '2022 천북 굴 홍보 행사'를 개최한다.

천북굴단지상인회가 주최하는 이번 홍보 행사는 3일 오전 천수만 농어촌 테마파크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굴비빔밥 시연 행사를 통해 행사 참여자들에게 싱싱하고 먹기 좋은 천북 굴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내내 초청가수 축하 공연, 품바공연, 관광객 노래자랑 등으로 굴의 풍미를 느끼면서 다양한 볼거리도 즐길 수 있다.

천북 장은리 굴 단지는 예전부터 굴 구이로 유명한 곳으로 한해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겨울철 최고 관광지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특히 천북 굴단지에서는 구이를 비롯해 굴 밥, 굴 칼국수, 굴 찜, 굴 회 무침 등 다양한 굴 요리로 맛 볼 수 있다.

보령 9미 중 하나이며,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 좋고 칼슘이 풍부하다.

또한 철분 이외의 구리도 함유돼 있어 빈혈에 좋고, 타우린이 많아 콜레스테롤과 혈압 저하에도 효능이 탁월



천북 굴 구이

하다고 알려져 있다. 아울러 굴에 함유된 아연은 성장호



새단장한 천북 굴단지 전경

르몬을 활성화하고, 글리코겐은 체지방에 스테미나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에 부담을 주지 않는 에너지원이기 때 /보령시 제공

감빛 물든 논산서 양촌곶감축제 즐겨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인과관리 모니터링으로 사고 예방

[논산] 2022년 제20회 양촌곶감축제는 '감빛 물든 그리움, 정이 물처럼 흐르는 햇빛촌'을 주제로 오는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양촌면 양촌리 체육공원에서 펼쳐진다.

축제 첫날에는 풍물놀이, 밸리댄스, 평양예술단 공연 등의 다채로운 예술 무대를 비롯해 개막 퍼포먼스와 공식 개막식이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 올린다.

이어 둘째, 셋째 날 역시 본무대는 ▲관광객 노래자랑 ▲전국곶감 가요제 ▲청소년 댄스대회 등의 신명나는 무대가 벌어질 예정이며, 특히 양촌면 주민자치회가 갖고 닦은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진행돼 함께하는 축제의 묘미를 살린다.

한편, 논산시는 축제·행사 시 방문객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양촌곶감축제가 열리는 논산에서는 감을 줄에 매달아 말리고 있다

만전을 기하고자 SK텔레콤과 합심, 전국 최초로 인과관리 서비스를 도입한다.

인과관리 모니터링 서비스는 주요 지점 방문객 데이터와 과거 축제 방문객 데이터를 비교, 인구 밀집 상황 발생 시 재난종합상황실·축제 관계자·안전관리자·시 관계자 등에게 실시간 인구 동향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

스다. 시는 이를 통해 필요시 빈틈없는 다중 인과관리에 나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인과관리 모니터링 서비스는 논산시청과 양촌면사무소, 양촌곶감축제장에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의 축제 기간 중 동시 운영된다. /논산시 제공

예당호 출렁다리 운영시간 변경 6일부터 오전 9시~오후 8시

[예산] 충남 예산군이 동절기를 맞아 6일부터 예당호 출렁다리와 레이저 영상쇼 운영시간을 변경한다.

예당호 출렁다리는 내년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레이저 영상쇼는 1월까지 오후 5시 30분, 오후 6시 30분, 오후 7시 30분 3차례, 2월에는 오후 6시 30분, 오후 7시 30분 2차례 각각 운영한다.

예당호 음악분수는 동과 방지를 위

해 운영을 중단한다.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예당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음악분수의 아름다운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부득이 음악분수를 중단하고 레이저 영상쇼 횟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예당호 음악분수는 동과 방지를 위 /예산군 제공

천만 그루 나무 심기 '그린 캠페인'

다양한 테마별 과제 중심 시민 참여형 장기 로드맵

[천안]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 도시를 구현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천안시가 '2030 천만그루 나무심기' 테마가 있는 그린천안 캠페인을 추진한다.

미세먼지와 도심 온도는 낮추고 산소농도는 높이는 체계적인 나무심기를 위한 이번 캠페인은 1000만 그루 나무심기의 기본 계획과 로드맵을 설정해 4대 전략에 따른 6개 테마별 중점과제를 통해 2030년까지 장기적인 사업을 펼친다.

천안시는 1단계로 2026년까지 500만 그루 나무를 심고, 2단계 2030년까지 1000만 그루를 심어 도시 숲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4대 전략은 ▲대규모, 자투리 유휴공간 활용한 그린인프라 도시숲 구축 ▲휴식과 치유의 생명수, 도심 속 힐링 공간 조성 ▲범시민 나무심기 캠페인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대폭 확대 ▲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녹색도시 인식 확산 및 시민사회 공감대 형성이다.

6개 테마별 중점과제는 ▲기후변화 대응 도시숲 조성 6개 사업 ▲전통과 역사가 있는 도시숲 조성 4개 사업 ▲쉽고 힐링이 있는 도시숲 조성 5개 사업 ▲모험과 체험이 있는 도시숲 조성 3개 사업 ▲아름다운 도시·하천 도시경관숲 조성 3개 사업 ▲도심 속 녹색 도시숲 조성 5개 사업이다.

기후변화대응 도시숲 조성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노태산·일봉산

민간공원 조성,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녹색 썬지움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저감숲 조림 등을 포함한다.

전통과 역사가 있는 도시숲 조성은 삼거리공원 재개발사업이나 호두공원, 태조왕건 기념공원, 무궁화공원 등 천안의 역사문화를 담은 공원을 조성하거나 보완해 주민 1인당 공원 면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쉽고 힐링이 있는 도시숲 조성은 천호지 수변경관 개선, 태학산 자연휴양림 확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모험과 체험이 있는 도시숲 조성은 조성 중인 태조산 산림레포츠시설과 유아숲체험원, 학교 주변 산책로에 조경수나 장식화단 등을 만든다.

아름다운 도시·하천 도시경관숲 조성은 5개 도심하천을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과 풍서곡교 천 정비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 시내 가로수길(따죽지) 조성 등을 시행하고, 도심 속 녹색 도시숲 조성은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 대규모 주택건설사업 등 추진 시 녹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민관 협력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대응 및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시민토론회나 심포지엄 등으로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공론화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나갈 방침이다.

식목행사도 관 주도의 일방적 기념행사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추진하면서, 다양한 관공서와 기업, 단체가 참여하는 나무심기 운동도 확산해 나무 심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천안시 제공

거꾸로 사는 세상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청춘페이지

터닝포인트, 63세에 나도 모르게 운명에 이끌려 되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잃고 건강하게 자라던 아들딸이 성인이 되면서 우울증과 사회 결핍증이 와서 사회 생활을 제대로 못 할 때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우울증에 시달리던 딸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어이없는 세상, 그 모든 충격에 나도 우울증이 오고, 누워서 동기간들의 보살핌으로 하루하루 견디던 중에 해나루시민학

교를 알게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또 다른 세상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아버지 살아생전 사람은 꼭 배워야 한다며 독학이라도 배움을 끈을 놓지 말라고 하셨고, 못 배운 게 은근히 한이 되어 살아온 날이었기에 용기를 내려고 병원에 가서 영양제도 맞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내려면 공부에 미쳐야 한다.

나의 좌우명이 되어버린 "끈" 손에 꼭 쥐고 학교생활 2년, 이제 다리에 힘이 좀 생겼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열공합니다. 예전의 씩씩한 장경순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반 친구들은, 나이가 나이인 지라 다리 아파, 허리 아파를 입에

달고 살지만, 이 나이에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공부를 해 보겠냐며 웃음소리 가득한 학교, 정말 행복합니다.

어느 땐, 시인이 된 듯 시를 쓰고 화가가 된 듯 그림을 그립니다. 비록 얼굴과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열다섯으로 되돌아가서 산다는 것이 축복받은 이가 아니면 누가 이런 행복을 누릴까요. 스스로 위로하며 나의 삶이 다하는 그 날까지 배움의 길을 향해 가겠습니다.



장경순 어르신 해나루시민학교 백합반(중2학년)



공주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공주] 지난 4일 충남 공주시 중학동에서 국제와 이즈맨 공주클럽 회원과 중학동주민센터 직원 등이 독거노인 가정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다. /공주시 제공



큰선비 포저(浦渚) 조익(趙翼)을 아시나요.

내포칼럼



백승종
전 서경대 교수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에 가면 포저 조익(趙翼)(1579~1655)의 묘가 있다(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84호). 그 아래는 사당도 있는데, 그는 조정에 나아가 좌의정까지 지냈다.

도덕과 문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서화에도 조예가 깊어 세상을 놀라게 했다.

선조 35년(1602) 5월, 24세의 젊은 나이에 「중용설」을 지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당대의 석학들도 어렵다고 말하는 『중용』에 관해 일목요연한 설명을 제시하였으니, 크게 될 나무는 떡잎부터 다른 것이었다.

깊은 연구를 통해 조익은 인간의 성품이란 하늘이 내려준 것으로, 선비라면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선비의 정성이 지극해야 일의 기미를 미리 알게 되며, 바로 그런 정성 또는 진정성이 있어야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고 설하였다.

선비는 저마다 타고난 성품을 부지런히 닦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마침내 하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요컨대 자신의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마침내는 우주의 질서가 바로 잡힌다는 것이었다. 조익은 이것이 성리학의 이상이란 점을 갈파하였다. 누구든지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결국은 성인이 된다는 신념이 꺾이지 않은가.

조익은 성인군자가 되기 위해서 선비는 다음의 세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홀로 있을 때를 삼가야 한다. 둘째, 지극히 단순하고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여 높은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려면 근본이 되는 작은 일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사람마다 기질의 우열이 있고, 예와 오늘(古今)의 차이도 있으며, 문

명과 오랑캐(華夷)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성품(性)과 도리(道)는 조금도 다름이 없다. 선비라면 중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이런 굳은 결심이 있어서였을 테지만 조익은 결국 비범한 인물로 성장했다. 광해군 3년(1611)에는 흥문관 수찬으로서 퇴계 이황의 문묘종사(文廟從祀)를 위해 노력하다가 관직을 그만두는 사태가 일어났다. 효종 즉위년(1649)에는 좌의정이 되어서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위해 힘쓰다가 여의치 못해 조정을 물러났다.

그가 이황 등의 옛 선비를 문묘에 종사하기 위해 힘을 쏟은 것은 왜였겠는가. 조선 유학의 뿌리를 확고히 다지려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해야 하겠다.

조익은 민생을 위한 마음도 유난히 깊었다. 김육(金堉)이 주장한 대동법을 시행하는 데 가장 적극적이었다. 임진왜란을 겪을 때 충청도 백성에게 과외로 많은 조세 부담이 부과되어 허리를 펴기가 어려웠는데, 조익은 그런 점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지주층은 대동법의 시행을 반대하며 여론몰이를 거세게 펼쳤으나, 조익과 김육 등은 충청도에도 대동법을 시행하는 데 성공하였다.

백성들은 대동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여 곳곳에 기념비를 세웠다. 그중 하나가 지금도 ‘김육비’(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37호)란 이름으로 아산시 신창면에 남아 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추상적이고 공허한 이론에 매달리기가 쉽다. 그런데 조익은 누구보다 다방면에 능통한 재사였음에도 평생 민생을 적극적으로 돌보았고, 학문의 근본을 수호하는 데도 앞장섰다. 그는 세월의 장벽을 넘어 21세기 시민에게도 사표(師表, 모범)이 되는, 참으로 귀한 분이다.

크게될 나무 떡잎부터 달라

24살에 「중용설」 지어내

민생 적극적으로 돌보며

학문의 근본 수호에도 앞장

세월의 장벽 넘어 21세기

시민에게도 귀감이 돼

노인일자리사업의 양과 질 제고를 통한 저소득층 고령자의 지원 강화를

■성인지 감수성 충전소

2000년대 진입 이후,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다. 지금의 고령자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역이지만, 양극화의 심화로 인한 빈부격차와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 노후생활의 보장받기는 매우 어려운 세대이다.

더욱이,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건강한 고령자는 증가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나 사회활동은 매우 제약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2004년 고령자의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정책적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첫 해인 2004년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실적은 35만 1227개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76만

9605개로 크게 확대되었고, 예산지원도 2004년 212억 6천 8백만 원에서 2020년 1조 2167억 6천 6백만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기조가 변화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축소와 함께 질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임금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저임금 단기 일자리의 단계적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대부분이 저임금 단기 일자리라고 비판하지만, 참여 고령자에게는 그조차도 생계와 직결된 매우 소중한 소득원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노후에 재취업이 어려운 사회환경에서 특별한 기술이나 특기가 있지 않는 한, 은퇴 후 고령자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축소가 더 취약한

고령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를 낳는 것이다.

충남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고령자 수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3만 8502명이고, 이 중,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전체의 82.1%인 3만 1610명의 고령자가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참여 고령자의 10명 중 7명이 여성으로, 여성 고령자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축소한다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겠는가.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고령자의 빈곤감소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노인일자리 축소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고령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산해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일 것이다.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맹준호

보석도 깎고 다듬어야 빛을 발한다

생생현장리포트



김장환
서천신문 기자

충남 최남단에 위치한 서천군은 지금이야 인구 5만의 작은 소도시로 지방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된 곳이지만 지역 내 숨은 자원들이 많기에 언제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곳이다.

각종 해산물이 넘쳐나는 서해바다와 너른 갯벌, 서천평야를 감싸고 흐르는 금강,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산소곡주’와 세계로 수출하는 ‘서래야 쌀’, 세계 유일의 섬 유축제인 ‘한산모시축제’, 농·수·축산이 골고루 발달한 청정지역, 송림숲과 신성리갈대밭,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인물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자랑거리가 가득한 곳.

서천의 숨은 보석들 중 하나가 바로 서천김이다. 예전부터 겨울이 끝날 무렵이면 가난한 어민들에게 두둑한 생활비를 챙겨주었던 ‘서천김’은 대규모 생산과 기계화 시설로 인해 충남도내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해 총 3331ha에 5만 9976책을 설치, 해마다 4만2000톤의 물김을 채취해 서천군의 대표특산물로 자리 잡

은 지 오래다.

하지만 이 같은 명성과 달리 인근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김축제’를 개최하며 ‘조미김’ 판매에 나서면서 ‘서천특산물’이란 타이틀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여 있다.

홍성군은 ‘광천김’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광천 김 축제’를 개최하고 40여개 국가 수출 성과와 서해 청정바다의 1등 원료 사용이라며 ‘홍성특산물’로 홍보하고 있고 해마다 670톤 정도 밖에 생산하지 않는 보령시 또한 ‘대천김’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보령의 대표 특산물’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역 경제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이들 지자체보다 서천군의 특산품을 지키지 못한 군 행정이 먼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민물유입 차단 등으로 본격적인 채취도 하기 전에 황백화 피해를 입었다며 김 양식 어민들이 군청 앞 집회를 갖고 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겨울철 대표 특산물인 ‘서천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서천군과 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옛말에 옥돌을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갈아 빛을 내는 것을 절차탁마(切磋琢磨)라 했다. 서천의 특산물인 ‘서천김’ 또한 군민 모두의 정성이 담겼을 때 서천의 진정한 보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처녀 우리 선생님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15)



소중애 동화작가

장난치며 지냈다.

한 아이가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높았다.

“어머, 돌이 뜨끈뜨끈하네.” 했더니 아이가 부르르 화를 내며 대들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선생님은 겨우 그런 말 밖에 못해요?” 애들도 만만치 않게 나를 놀려 먹었다.

화장실에 갈 때는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자습시키고 다녀왔다.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이 화장실 문앞에 모여 귀를 기울이며 킁킁거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그날도 수업시간에 화장실에서 일을 마치고 나가려 하니 아차,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잠갔다. 분명 우리 반 누군가 소리 없이 쫓아와 잠근 것인데 안에서는 열 수가 없었다. 쉬는 시간까지 화장실에 갇혀있었다.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 킁킁 웃는 아이들의 즐거움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년센스 퀴즈를 냈다. “애들아, 애들아 노처녀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차가 뭐게?” 힐끔 나를 쳐다 봤다.

“중애야!” “왜 불러?” 했더니 기절할 듯 놀라 달아났다.

나는 이런 일들이 재미있고 좋았다. 집에 가서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가 수십년 교직에 계셨던 아버지께 야단맞았다. 애들하고 킁킁거리며 장난치니깐 권위가 서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애들과 킁킁길

“중애야!” “왜 불러?” 했더니 기절할 듯 놀라 달아났다.

“노처녀가 갖고 싶어하는 차는 유모차야.” 애들이 나를 쳐다보며 웃었다. —첫 나는 아닌데..— 나는 억울했다.



오거리 사진관 단원들과 함께



'켓올라잇' 무대를 함께한 단원들.



충남연극협회 김수란 회장

공무원에서 연극 배우로 변신, 이보다 짜릿한 건 없다

무대 위에서 가장 빛나는 충남연극협회 김수란 회장

[서산] 극단등지에서 몸담고 있는 충남연극협회 김수란 회장은 한때 철밥통 공무원이었으며, 현재는 연극에 전념하고 있는 서산의 인물이다. 이런저런 연극 속 인물로 긴 시간을 살아온 그녀에게서 진짜 연기란 무엇일지가 몹시 궁금했다.

“연극무대란 제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좋다 뭐다 해도 이 일보다 재미있고 짜릿한 건 없었어요. 당당하면서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상투적이지 모르지만 진짜 공연하다가 무대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거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한때 철밥통 공무원이었다가 연극인이 됐다. 당시 이야기를 들려달라.

“공무원 되기 훨씬 전부터 연극을 먼저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무 살 넘

도록 먹고 살기도 급급한데 계속 연극만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부자도 아니면서 부모님께 빌붙어서 사는 것도 그렇고요. 고민하다가 ‘그래, 연극이야 하고 싶으면 계속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공무원이 되고 같이 해나가자’라고 결심했죠. 그 무렵에 때마침 준비했던 공무원 시험에 탈락 합격이 된 거예요. 일하면서도 연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죠. 너무 좋았어요. 먹고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됐으니까요. 시간이 갈수록 연극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연차도 몰아 쓰면서 무대에 머물렀죠.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니까 파이가 커지면서 조금씩 (병행)힘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런 시점이 왔을 때 딱 결정했죠. 거짓말 안 보태고 고민 하나 안 하고요. 그런데 막상 사표를 내고 나니 연극밖에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거

예요. 미친 듯이.”

정말 실천에 옮겼군요. 주위 반대는 없었는지, 그리고 본인은 어땠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용기이었나 봐요. ‘왜 나가냐’ ‘이 철밥통을 왜 그만두냐?’ ‘미쳤냐?’ ‘남들은 공무원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라는 등 정말 얘기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상 저에게는 용기 따윈 전혀 필요하지 않았죠. 지금도 전혀 미련 같은 건 없어요.

결정하고 나서는 빨리 그만두고 싶었고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웠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은 이제 끊어버리고 정말 연극 하나에만 몰입하고 싶었으니까요.”

무대로 돌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배우로 나오니까 저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직장 다니면서 배우를 했

을 때는 결코 배우라고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저는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잘했지만 늘 취미 그 이상으로 봐주지 않았으니까 은근 그것도 스트레스였어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확 돌아서오니깐 그때부터는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역으로 요구가 달라졌어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고 더 전문적이라야 되지 않냐?’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제가 이 분야에서 뭔가 오롯이 오래 할 수 있겠구나 싶어 만족감이 있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가족)지지받지 못한 결정을 하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무조건 나는 잘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게 들더라고요. 뭔가 보여줘야 하니까요. 뭔가 ‘희망의 증거’도 되고 싶었고요. 제 성격상 실패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어요. 단단히 마음먹고 다짐했어요. ‘그래,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냥

직진이다’라고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꿈이 있다면요.

“무대에서 저의 진솔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저의 삶을 투영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쨌든 늘 남의 인생만 조각하는 게 연극이잖아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 배우도, 그걸 관람하는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요. 또 하나는 같은 길을 가는 우리 후배들이 “그래 저 선배는 천상 배우였어. 그냥 좋은 선배였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남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하거든요. 참, 내년에는 충남연극제, 청소년연극제, 아마추어연극제가 내실 있게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는 약속도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서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관계자분들과 시민여러분이 함께 도와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서산시의 문화예술 도시를 위해서요.” /서산시대 제공

“내가 살기 위해 시작..이제는 남을 위해 합니다”

석문요양원 김현옥 대표

[당진] 세상에는 나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희생하면 서까지 남을 위해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누구든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기에 ‘남’도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의 이익과 ‘남’의 인생을 같이 생각한 사람이 있다. 바로 석문요양원의 김현옥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석문요양원 김현옥 대표.

석문요양원 김현옥 대표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살아가야 하기에 요양원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겸손한 말 뒤에는 감히 따라 할 수 없는 김현옥 대표의 큰 마음이 숨어있다.

“제가 아마 2007년부터 요양사 일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식이 셋인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떠나서 혼자 어머니, 아버지, 자식들까지 다 돌보고 챙겨야 했어요. 내가 살려면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셔야 하니까 요양사 공부를 시작했죠. 요양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하다보니까 보호자들이 요양사를 천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공부를 해야 무시를 당하지 않겠구나 생각해서 공부를 해서 전문성을 띠는 것을 목표로 삼았죠”

김현옥 대표는 혼자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여럿이서 돌보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 2017년 12월부

터 석문요양원을 만들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르신들의 편안함이었다. 그래서 중간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까지 같이 만들어 어르신들이 장소이동없이 어색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보살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현옥 대표는 밑에 있는 직원을 시키기보다는 본인이 움직이는 것이 더 편하다고 말한다.

“누만 뜨면 가고 싶은 직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더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일을 많이 시켜서 어르신들께 짜증내는 감정소비가 없도록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건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내가 편하면 뭐해요. 우리 직원들이랑 어르신이 편해야 좋죠.”

인생의 굴곡을 넘어온 김현옥 대표는 어르신들을 보살피면서 들리는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들에 속이 답답하다고 한다.

“남인 나도 이렇게 모시는데 정작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에 한 번 방문요양을 할 때 자식들이 처음에는 부모한테 관심 많은 척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면서 간섭을 많이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연락이 끊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르신 집에 찾아갔는데 이미 돌아가셔서 시신이 차가운 상태였어요. 자식들한테 연락하니까 ‘저 어제도 연락했는데요?’ 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한 것처럼 자식도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을 보면 갑갑하죠. 정말 갑갑해요”

현재 5년째 석문요양원을 운영하는 김현옥 대표는 센터에 들어오는 어르신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 어쩌면 어르신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해, 석문 요양원을 위해 달릴 것이라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저는 건물 지을 때 진 빚을 다 갚으면 이 옆에 요양원 건물을 하나 더 지어서 증축시키고 싶어요. 지금 요양 시설 쪽에는 9명의 어르신만 모실 수 있는데, 건물을 하나 더 지어 9명의 어르신을 더 모실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리고 싶어요. 서비스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집처럼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저는 어르신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당진신문 제공

노년 이렇게 즐거울까!

계룡시 노인복지관 어르신 발표회

[계룡] 계룡시 좋은 이웃 만들기 프로젝트 ‘노년, 이렇게 즐거울까! 행사’가 지난 25일 계룡시 노인복지관에서 펼쳐졌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관내 노인 및 지역주민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니어대학 발표회와 구성예, 엄영수의 2인 2색 명사 특강, 건양대학교와 함께하는 건강 체험 등 행사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계룡 시니어대학 발표 1부에서는 실버난타, 칼림바, 시 낭송, 시상식에 이어 구성예 강사의 명사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2부에서는 하모니카, 방송댄스, 시상 및 추사에 이어 엄영수 강사의 명사 특강이 열렸어요. 무대 위에 나란히 앉아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어르신들 모습이 정겹게 느껴 집니다. 하모니카는 폐활량을 높여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계룡시 복지관 어르신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 또한 남다른데요. 한 어르신은 그동안 바쁘게 살다 보니 배움의 기회를 놓쳤는데,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양대학교와 함께하는 건강체험 행사는 사회복지학과, 글로벌 의료뷰티학과, 물리치료학과, 재활 퍼스널 트레이닝 학과, 스포츠학과, 치위생과, 총 6개 학과가 참여하여 풀코스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건양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어르신들께 마사지와 근 이완 및 호흡 운동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건강 상태에 맞게 맞춤 운동법으로 지도하는 모습이 할머니와 손주처럼 정겹네요. 어르신들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도민리porter 가을하늘



실버난타 무대를 선보이는 어르신들.

옹기장 60년 인생, 명맥 이어줄 후학 애타게 찾는다

플라스틱 보급으로 옹기 사양길
생계 어려워지자 후학 받길도 끊겨

[천안] 충남무형문화재 이지수 옹기장은 60년 동안 옹기만 빚었다. 옹기장이었던 할아버지 고 이 관여 씨, 그리고 아버지 이원범 씨께 직접 옹기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3대째 이어오던 옹기 만들기는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급기야 이지수 장인은 후학을 찾아 나서고자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기자는 23일 오전 아산시 도고면에 있는 이지수 옹기장의 작업실을 찾았다. 이 옹기장은 부지런히 흙을 빚어 옹기를 빚고 있었다. 이 장인의 옹기를 향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이곳 도고면은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옹기로 유명했다. 옹기 굽는 이들도 70명이나 있었다. 그러다 플라스틱과 비닐이 보급되면서 옹기는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옹기는 세상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숨 쉬는 그릇’이다. 최근 노년층에선 관절 이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미세 플라스틱과 무관하지 않다. 옹기를 주로 썼던 시절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옹기를 만들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다. “나무나 돌로 조각하는 건 완성만 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옹기는 젖은 흙으로 빚어 말린 다음 1200℃ 불가마에 구워 비로소 완성된다. 어느 과정 하나 쉽지 않다”는 게 이 장인의 설명이다.

충청남도는 지난 2000년 이지수 장인 가문의



옹기 만들기에 60년을 바친 이지수 옹기장. 이 옹기장은 옹기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다며 후학을 찾고자 도움을 청하고 나섰다



이지수 옹기장이 옹기를 빚는 모습. 옹기에 60년을 바친 내공이 엿보인다

역사와 노력·공헌 등을 인정해 그의 집안을 충청남도 전통문화가정(8호)으로, 그리고 2008년에 이지수 장인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38-2호로 지정했다.

옹기장인의 탄식, “문화계 종사자도 밥은 먹고 살아야”

그러나 무형문화재 지정이 곧장 생계로 이어지는 않았다. 게다가 옹기가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옹기를 만들어 파는 회수도 일년에 손꼽을 정도다.

생계가 어려워니 옹기 만드는 기술을 배우려는 후학도 찾기 힘들어졌다. 이 장인의 월수입은 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전승지원금 120만원과 주말 옹기체험 수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전

부다.

무엇보다 이 장인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수년 전 손혜원 당시 의원이 불러 국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지난 60년 간 옹기 만드는 일을 해오면서 정치권에서 관심을 보인 건 그때가 유일했다. 국회에 문화 분야를 맡은 의원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러니 제도적 지원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적어도 밥은 먹게 해줘야 하지 않은가?”

앞서 적었듯 이 장인은 주말 체험수업을 통해 옹기 만들기에 관심 있는 이들을 가르친다. 경찰 고위간부, 의사, 국립대 교수 등도 옹기 만들기

를 배워간다고 이 장인은 말했다.

그러나 이 장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생활고에도 옹기 만드는 일을 놓지 않은 건, 이 일 말고는 다른 할 일을 찾기 어려워서다.

인터뷰 말미에 이 장인은 옹기의 명맥을 이어 줄 후계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남겼다.

“올해 내 나이 여든 둘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시력과 청력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 얼마나 더 옹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저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는 일 해줄 사람, 진득하게 오래갈 사람 하나 잘 가르치는 일 맡곤 바라는 게 없다. 이게 마지막 소원이다.”

/천안신문 제공

태안 앞바다서 발굴된 고려청자 한 자리에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등
12~13세기 고려청자 전시

[태안] 충남 태안 인근 바다에서 수중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명품’ 고려청자가 한자리에 모인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태안해양유물전시관에서 ‘신출귀몰(新出貴物), 태안 바다의 고려청자’ 전시를 개최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태안군 대섬과 마도 해역에서 발굴한 유물 2만9천여 점 가운데 보물로 지정된 12~13세기 고려청자 9점을 모은 전시다. 연구소가 직접 수중에서 발굴해 보관하고 있던 보물 청자들이다.

전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관람객들은 첫번째 전시공간에서 두꺼비가 머리를 들고 다리를 웅크린 모양의 벼루를 볼 수 있다.

2007년 고려시대 선박인 ‘태안선’을 조사하던 중 발견된 ‘청자 퇴화문두꺼비모양 벼루’는 몸통 표면에 흰색과 검은색의 반점을 뚜렷하게 표현한 점



태안 해역에서 나온 보물 고려청자 모습.

이 특징이다. 먹을 가는 연당(硯堂)에 두꺼비발 모양을 음각으로 새긴 점도 흥미롭다.

청자 벼루는 고려시대 유물로는 보기 드문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유물 또한 많지 않다.

연구소 관계자는 “청자로 제작된 벼루 중 두꺼비 모양은 유일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벼루는 1131년 지금의 강진 지역에서 만든 도자기를 신고 개경으로 향하다 태안 앞바다에서 난파된 것으로 추정되는 태안선 발굴 과정에서

나와 출토지와 제작 시기가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두 번째 공간에서는 2010년 ‘마도2호선’ 발굴 과정에서 나온 청자 매병이 전시된다.

각각 ‘청자 음각연화절지문 매병 및 죽찰’, ‘청자 상감국화모란유로죽문 매병 및 죽찰’로 이름 붙여진 두 유물은 글자를 적은 대나무 조각인 죽찰이 함께 나왔다.

매병과 함께 발견된 죽찰에는 화물을 받는 사람 정보와 꿀, 참기름 등 내용물 등이 기록돼 있어 국내에서 확인된 매병 가운데 용도가 파악된 사례로는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시에서는 매서운 눈매와 날카로운 이빨이 돋보이는 ‘청자 사자형뚜껑 향로’ 한 쌍도 함께 공개된다.

두꺼비 모양 벼루와 함께 태안선 발굴 당시 나온 이 향로는 3개의 발이 달린 몸체와 사자 모양의 뚜껑으로 이뤄져 있다. 두 향로는 크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수염이나 색상 등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태안신문 제공

시민뮤지컬 공연 ‘부여비트’ 성료

중학생부터 71세 어르신까지

[부여] 2022년 충남 청년공모사업 지원으로 청년문화예술공동체 부여안다(대표 김한솔)가 기획한 뮤지컬 공연 ‘부여비트’가 지난 27일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충남 부여군이 최초로 시도된 시민뮤지컬 ‘부여비트’는 군민 31명이 모여 지난 4개월간 준비한 종합 예술극이다. 14세 중학생부터 71세 어르신까지 참가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서로의 다름을 넘어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후 2시와 6시 두 차례 진행된 공연에 부여군민은 뜨거운 관심으로 호응하며 400여 객석을 가득 매웠다.

총기획을 맡은 부여안다 김한솔 대표는 “문화 콘텐츠가 부족한 부여군민을 위해 이번 뮤지컬을 기획했지만 관객이 적을까 걱정했는데 꼭 찬 객석을 보니 지난 4개월여 힘들게 연습한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며 “앞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공연 및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청년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여군 제공



뮤지컬 ‘부여비트’ 공연 모습.



사서들의 서재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심혜경/더퀘스트/2021〉

카공 할머니의 공부 자극 에세이

적당한 소음을 즐기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한다. 카공족 하면 보통 이십삼 대의 대학생이나 직장인을 떠올리게 되는데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라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에 이끌려 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매일매일 공부하는 할머니가 되기를 꿈꾸는 공부 생활자 심혜경 씨의 에세이이다. 그녀는 27년간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

했고 현재는 번역가와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현재의 삶에 갇혀 더는 생각이 자라지 않을 때 새로운 생각을 얻기 위해 뭔가를 배운다고 말한다. 여기서 공부란 언어나 학문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독서, 취미 등 배운다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일체의 행위이다.

퇴직 후 십여 년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한국방송통신

대 편입과 졸업을 반복하고, 영화 제작, 클래식 기타, 바이올린, 태극권, 재봉틀을 배우고, 두세 개의 독서와 스터디 모임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배움의 모토가 있다. 스트레스 없이 꾸준히 공부하는 것. 뜨겁게 불타올라 빠르게 연소 시켜야 하는 학생 때와의 공부와는 다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 꾸준히 공부하며 자신과 맞지 않은 공부의 과감히 내려놓는다.

꾸준함의 힘은 무섭다. 그녀는 우리말 책이 나오지 않는 원서를 읽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영어 번역 공부

덕분에 우연한 기회에 번역가가 되었고, 출판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지인들과 일본 여행을 목적으로 시작한 일본어 스터디 모임을 통해 “언니들의 여행법 : 도쿄편”의 공저자가 되었다.

사실 그녀에게 할머니라는 호칭은 어울리지 않는다. 나이대로는 할머니 연배이겠으나 경력과 행보가 너무 화려하니 말이다. 이 책을 읽고 미뤄뒀던 무언가를 하고 있다. 현재의 삶에 갇혀 더는 생각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충남도서관 최현주 사서



제341회 정례회 2·3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 확대 요구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 1)이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광철 의원은 “공주시는 세 도시 출범 당시 인구 5846명, 토지 76.1km², 학교 및 다수의 기관과 산업체가 편입됐다”며 “토지의 경우 당시 공시지가로 1조 7970억 원의 가치이니 엄청난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한 공주의 피해는 엄청나다. 미흡하나마 대책으로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29만 평 규모의 사업을 50만 평 규모로 확대해 인구 유입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고 의원은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채석단지 예정지 500m 부근에는 가정집(56가구), 기업체 및 식당(7곳), 축사(9곳) 등 주민들이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어 생계는 물론 건강이 매우 위협된다”고 주장했다.

‘충남종합사격장 부지 10년째 방치’ 지적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은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가 230억 원짜리 종합사격장 건립 계획을 보류한 뒤 26억 5000만 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10여년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태희 지사에게 “이후 더 나은 사업을 약속했지만 대안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부지만 10년 넘게 방치하는 사유를 이해할 수 없다. 사정상 종합사격장 사업은 과거하더라도 구 봉곡산 폐광지역에 대한 적절한 대안사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그동안 종합사격장 건립사업 폐지 후 부지 관리 소홀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앞으로 청양군민의 입장에서 대안사업을 찾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김 의원은 김지철 충남교육감에게 “교육재산을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스마트교육시설 건립 시 50년 된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주변 사유지 시설을 포함해 규모 있는 교육시설공간으로 확장해 달라”고 주문했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차별 개선 촉구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이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가족”이라며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가 조화·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학부모의 선택권은 좁아지고, 어린이집은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을 통해 외국인 자녀가 한국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소요 예산은 약 9억원으로 도지사 공약 및 역점사업 6889억원과 비교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충남은 15개 시·군 중 이미 10곳이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모범 지역”이라며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대한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

‘의용소방대 사무실 조속히 건축해야’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은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및 소방청사 보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378개대 의용소방대 및 9233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총 2216회 출동했다.

방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 고리로서 지역사회 안전망의 가장 중심에 있다”면서 “그러나 도내 6개소의 유인도에 아직까지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없고, 예산군 오가면 의용소방대는 임시 컨테이너를 사용하며, 예산읍내 의용소방대는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소방서, 금산소방서 등 소방청사가 협소한 곳도 있다”며 이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 수행에 제약을 주고,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하라”고 당부했다.

‘정책 폐지시 도민 의견 수렴해야’



충남도의회 안장현 의원(아산 5)은 220만 도민에 대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여성농업인바우처제도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다수가 동의한 제도가 없어지는 데에 대한 이유를 도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도정은 다른 부분을 존중하고, 토론회하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리브투게터 사업과 관련 “지방소멸기금의 활용 목적과 함께 도의 재정적 부담을 감경하기 위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의병기념관 건립과 관련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인 만큼, 충청남도 속의민주주의 조례를 활용하여 문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그는 ▲충남문화관광공사 설립 시 타 지자체 사례 분석 ▲103억원을 투입 예정인 메타버스 도청 설치 공약의 재검토 ▲혁신교육·인권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고교평준화 개선 통한 교육 내실화 강조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 5)이 학력 하향 평준화 및 학교의 특색과 전통 소멸의 원인이 된 교육감전환의 문제점, 혁신학교 운영개선을 통한 교육 내실화를 주문했다.

유 의원은 “도의원 재임 전 3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때 고교평준화로 인한 폐해를 직접 경험했었다”며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신의 선택이 아닌 운에 의한 학교 배정은 많은 학생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전했다.

또 “한 교실에 학습 편차가 심한 학생들이 같이 수업하게 되면 학습 동기가 사라지고,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된다”며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적인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학교당 평균 4000만 원, 학교당 학생 수도 25명으로 하향 지원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운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성, 충남의병기념관 최적지’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 1)은 충남의병기념관 건립과 관련 부지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충남의병기념관 건립은 외세에 대한 충남의병의 역사를 기리는 아주 훌륭한 공약이지만, 부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돼 홍성군민과 예산군민 간 갈등을 유발했고, 그 결과 지역주민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의병을 깊게 알기 위해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 의병과 관련한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의병 관련 부분에 ‘충남의병’은 없어도 ‘홍주의병’은 있었다”며 “홍주의병이 있었던 홍주성이야말로 충남의병기념관의 적지”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병기념관 건립에 있어 역사적 배경 등 체계적 분석과 공정성이 갖춰진 상태에서 부지 선정이 이뤄져 의병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식 조리실 및 소음피해학교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 3)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의 폐암 발병과 산업재해 승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남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의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2년 도내 급식업무 종사자의 폐암 등 건강검진과 관련해 29.2%가 이상 소견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도내 학교 급식실 중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45.1%나 된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은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산재발생 현황이 높은 지역이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며, “충남 학교급식 조리실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조리실 환기 및 공기순환 성능 정기검사와 노후 시설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내 학교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없음’으로 회신이 왔다. 충남교육청은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현황 파악조차 미흡하다”며 조속한 소음실태조사와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도내 과밀학급 해결대책 촉구



충남도의회 이용국 의원(서산 2)은 ‘도내 과밀학급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 ‘전국 시도 과밀학급 비율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은 전국 세 번째로 과밀학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군구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1위에서 10위까지가 수도권 지역(9곳)인 반면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천안(학급당 25.8명)이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충남은 초등학교 1108학급, 중학교 1450학급, 고등학교 736학급 등 총 3294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또 교육부 조사만 봐도 도내 과밀학급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산시 성연중학교 이전 신설을 주문하며 “성연중은 학급당 26.5명의 학생이 교육받지만, 2028년까지 내다 볼 때 학급당 56명의 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산테크노밸리 주거단지에서 성연중까지 약 2.7km(약 40분)의 등굣길이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라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전 학사관 충남이전 제안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첫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 연속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에서 운영하는 대전 학사관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기획조정실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는데 담당관실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혁신에 앞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의 혁신이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새로운 충남학사를 대학이 있는 천안, 아산, 공주, 논산 등으로 옮겨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소규모 원룸형 기숙사를 지원해주고, 천안·아산은 기존 형태와 비슷한 대형 학사관을 운영하도록 제안하며 “학사 이전 시 학생 1인당 월 5만원만 지역에서 소비해도 월 1000만원 이상이 소비되는 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은 “9조원대 예산을 운용하는 충남도가 90억 사업을 상제한 검토 없이 일몰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진시도 1호선 공사 구체적 답변 요구



충남도의회 최창용 의원(당진 3)이 당진시도 1호선의 지방도 승격과 확장·포장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주문했다.

최창용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질의한 바 있다”며 “그러나 ‘재정 여건 감안, 교통량 변화 추이 검토’ 등 지극히 관행적이고 상투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이것이 최선의 답변이나”고 질타했다.

1호선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진입로로 교통량이 날로 폭증하고 있으며, 충남 서북부 지역 공단의 물동량을 운송하는 간선도로이다. 농촌 지역으로 농기계 운행도 빈번하며, 때로는 저속 차량이 수 킬로미터(km) 출발장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추월하는 차량도 종종 목격돼 매우 위험한 실정이라는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어 최 의원은 “충남 15개 시·군 중 유독 당진시만 소외당하는 것 같다. 똑같은 도민인데 내포신도시로 연결된 도로 중 유일하게 편도 1차선으로 연결돼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집행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보령호 역간척사업 재추진해야’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 2)은 홍보지구(보령호) 역간척사업과 31년째 개선되지 않는 수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이미 주요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하구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또한 시화호처럼 상류엔 제방을 쌓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하류는 수문을 열어 해수 유입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민선 6기에 제안해 최종 선정됐으나 민선 7기 도지사가 바뀌며 보령호 사업은 사라지고 부남호 역간척 사업으로 전환됐다”며 “왜 보령호는 안 되고 부남호는 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 보령시민과 홍성군민을 무시한 처사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보령호 사업 재추진을 통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이어가 달라”며 “보령·홍성 연안 어장의 수질 환경 개선에 대한 충남도의 대책도 시급하다”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상임위원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예산편성 강조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은 지방은행 유치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충남의 은행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치를 한다면 1금융권을 만들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은 “장학금 지급의 기준을 부모로 하는 것은 ‘부모찬스’가 될 수 있으므로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위원(금산)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주요 사업들의 감액이 도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과 관련 “인도와 같이 한류 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안종혁 위원(천안)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기업들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운 의원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ESG 경영 컨설팅에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 진통 끝에 승인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옥수)는 지난 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그중 충남도가 제출한 민선 8기 조직개편안 이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은 “조직개편안이 통과 되면 정책지원전문인력 14명이 정원에 포함되게 된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정책지원관 채용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업무가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와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로 나누어져 있다”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행정을 효율성 있게 진행하려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행문위가 심사한 12개 안건 중 핵심 쟁점인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정회하고 의안 순서를 마지막으로 변경하는 등 진통을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일자리 통합 운영 통한 실효성 확보 주문

복지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2일 ‘저출산보전복지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의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은 “과도한 예산 감액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한일 위원(예산)은 “노인 일자리 제공 기회 확대를 위해 시·군과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은 공공기관 재위탁 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 부재를 지적했다.

양경모 위원(천안)은 “2022년 일몰한 사업을 2023년도에 예산 재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연희 위원(서산)은 “2023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64억원 증액됐다. 수입금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은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기관 위탁 관련 “사업추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정병인 위원(천안)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감액 편성으로 인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농업인을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 당부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2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과 조례 1건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은 “농촌 기계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집단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은 “충남에 맞는 작목 연구 예산확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의원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식 유리온실과 PE온실

둘 다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신영호 위원(서천)은 “청년농과 스마트팜 사업 운영에 있어 중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오안영 위원(아산)은 “직파재배 보급이 시급하다. 홍보활동에 더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성재 위원(천안)은 “스마트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시 농업인들이 직접 대응하도록 기술적인 부분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주진하 위원(예산)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 발생 원인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후속 처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경제 활성화 및 건설경기 부양대책 촉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2일 건설교통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은 “건설경기의 부양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은 “지역별 요구사업과 당진지역 지방도의 적정한 토지 보상 추진 철저”를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은 도내 M버스 추진 관련 예산안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창용 위원(당진)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에 적극적인 행정을 뒷받침해달라”고 요구했다.

신한철 위원(천안)은 “주민편성 예산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주민 의견 반영도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고광철 위원(공주)은 “수덕사 IC 출구 커브길 과속 단속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무리한 건수 위주의 단속을 비판했다.

김도훈 위원(천안)은 “재활용 지원 및 친환경 소재 신규사업내역을 보면, 나누기식 산출 행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용국 위원(서산)은 협의회 지원 예산편성 사업 중 참석 수당 필요성에 의문을 표했다.

교육 사업 적정성과 실효성 중점 점검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2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예산안을 심사를 진행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은 “앞으로 교육청은 포괄적 예산 편성을 지양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은 “부성중학교에 하루 빨리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치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가시적인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식 위원(아산)은 “소방시설 보완 등 모둘러 교실의 단점을 보완해 민원을 최소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신순옥 의원은 “AI 교육의 경우 지역별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발굴 운영해달라”고 밝혔다.

박미옥 의원은 “공사 기간 관리에 만전에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은 “지역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충성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건식 충성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특위는 의료원장으로서의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충성의료원의 운영 방향과 산적한 현안의 해결 방안 등을 물으며 경영 능력 평가를 진행했다.

인구소멸지역 위기 극복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연구

김명숙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연구모임은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지역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가 충남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회

의에는 대표인 김명숙 의원(청양)을 비롯 15여 명이 참석했다.

김명숙 대표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제도권 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잘 운영되어야 지속가능한 지역인재 육성과 공동체가 유지된다”며 “운영 주체와 주민자치회가 협업해 운영되는지,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다음아트홀 연말 기획전시 개최

충남도의회가 연말을 맞아해 의회 1층 다음아트홀에서 도청 어린이집 원아들의 창작 작품을 한 달간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는 지구지킴이’라는 주제로 만 3~5세 유아들이 재활용품 등을 활용해 창작한 작품들로 구성됐으며, 반별·개인별 작품과 공동작품을 전시하고 학부모와 함께 작품을

관람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포토존도 운영한다.

만 3세반은 계란판, 병뚜껑, 나뭇가지 등으로 작품을 만들어 9일까지 한 주간 전시하고, 만 4세반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로 아파하는 동물’을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17일까지 전시한다. 이어 만 5세반 원아들이 버려지는 과자봉지 등으로 만든 가방과 옷 작품을 30일까지 2주간 전시한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모색

신한철 의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날 기념행사를 신설하고, 직책 임명 기준 등을 정립하는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의용소방대 역할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한철)’ 3차 최종 보고회에서 논의됐다.

조례를 통해 기념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원들의 봉사·희생정신을 기리고, 숙련된 대원 직책 임명을 통해 조직 효율성 제고는 물론 단결과 결속력을 강화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신한철 의원(천안)은 “의소대는 크고 작은 소방 활동 현장에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사명감과 의용봉공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라며 “소방대 활성화는 물론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 농업 구조개선, 예산 비중 확대한다!

충남도가 농업 구조 개선에 6000억 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농업 구조 개선 5670억 원,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156억 원, 농어민수당 개인별 지급 128억 원 등 총 5964억 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4.5%에서 2026년 16%까지 확대한다. /도정신문팀



농업정책 추진방향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156억 원 신규 투자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 농업경영 전문교육 확대 : 임기내 6,000명 / 36억 원(자담 10%)
- 선진농업 해외연수 : 임기내 1,600명 / 80억 원(자담 50%)

농어민 수당 지급개선

- 개선내용 : 가구당(80만 원) → 개인당 (1인 세대 80만 원, 2인 이상 세대원 당 45만 원)
- 지급액 : 1,278억 원 → 1,406억 원 (128억 원▲)
- 지급대상 : 가구조 16만명 → 농업인 개인 23.4만 명(7.4만명▲)

가구당 8만원, 총 128억 원 증액, 지급대상 증가분 7.4만명은 대부분 비농가주 여성



※ 여성농업인 행복배우처, 청년농업인 영농배우처 사업 중단 농촌복지 정책을 농어민수당으로 일원화